

Day 9 / 100

Episode 125 · Part 9/17 · A Stockholm Castle Wedding, Jeonse Stress, and Kids' Milestones · 원본 27:38-30:51 (193초)

오늘 이야기

바텐더가 본 미국인, 병에 붙어 있는 뚜껑, 유모차 미는 아빠들, 그리고 '라곰(lagom)'

스톡홀름 바텐더가 말한 미국인의 특징 두 가지로 시작합니다. 첫째는 '보이기 전에 소리부터 들릴 만큼' 시끄럽다는 것, 둘째는 칵테일 하나도 전부 커스터마이징한다는 것. 이어서 다니엘이 극찬하는 유럽의 '병에 붙어 있는 뚜껑' 규제, 카페 앞에 유모차를 세우고 커피를 마시는 아빠들과 18개월 육아휴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라는 스웨덴의 핵심 철학 라곰과 '나쁜 날씨란 없다, 나쁜 옷차림이 있을 뿐'이라는 말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루틴

① 대본 없이 듣기 1회 → ② 대본 보며 듣기 → ③ 쉼도잉 3회 이상(0.8x→1.0x) → ④ 핵심 문장 각 10번 → ⑤ 대본 없이 영상만 보며 따라 말하기(블라인드). 이 PDF는 핵심 문장과 단어를 펼쳐 놓고 소리 내어 읽는 용도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 14개 — 입에 붙을 때까지 10번씩

1 This is from the perspective of a bartender, so that colors this.

이건 바텐더 입장에서 본 거라 그 관점이 반영돼 있어.

from the perspective of ~ = '~의 관점에서'. color(동사) = 영향을 주다, 색을 입히다. 남의 의견을 전할 때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미리 깔아 두는 표현.

2 You hear them before you see them.

보이기 전에 소리부터 들려.

시끄러운 사람을 묘사하는 관용적 농담. 문장 리듬(hear them / see them)을 똑같이 맞춰 말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them 은 '덤'처럼 약하게.

3 They love to customize everything.

뭐든 다 커스터마이징하는 걸 좋아해.

love to + 동사 = '~하길 정말 좋아하다'. customize 는 주문·설정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다'. 레스토랑에서 'Can I customize it?' 으로 활용.

4 Most Europeans will just say, "Give me a cocktail that you recommend."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추천하는 칵테일로 주세요' 해.

will 은 '~하곤 한다'(습성). a cocktail that you recommend = '추천하는 칵테일'. 바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주문 문장.

5 Just saying.

그냥 그렇다고. (그냥 말해 본 거야)

I'm just saying 의 축약. 살짝 날카로운 지적을 한 뒤 '공격 의도는 없어'라고 누그러뜨릴 때 씁니다.

6 I don't know why every country in the world doesn't require it.

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걸 의무화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 문장 = '왜 ~인지 모르겠다'(답답함·감탄). require = 요구하다, 의무화하다.

7 You never lose it.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지.

일반적인 you(누구나). 장점을 한마디로 말할 때. 'You never have to worry about it.' 도 같은 흐름.

8 I want every country in the world to mandate that the bottle caps have to stay attached.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병뚜껑이 붙어 있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어.

want + 사람/대상 + to V = '~가 ...하길 바라다'. mandate = 법으로 의무화하다. stay attached = 붙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9 I honestly think it was about 70% of the time the father.

솔직히 70% 정도는 아빠였던 것 같아.

I honestly think ~ = '솔직히 ~인 것 같아'. about 70% of the time = '열에 일곱 번은'. 비율을 말할 때 'of the time' 을 붙이는 습관.

10 It was such a common scene to walk by a coffee shop and see two dads sipping their coffee.

카페를 지나가면 아빠 둘이 커피를 홀짝이는 게 아주 흔한 풍경이었어.

such a common scene to ~ = '~하는 게 아주 흔한 풍경'. walk by = 옆을 지나가다. sip = 홀짝이다. see + 사람 + -ing(보고 있는 장면).

11 Don't quote me on this.

정확하진 않으니 인용은 하지 마. (내 말 그대로 믿지는 마)

확실치 않은 정보를 말하기 전에 붙이는 면책 표현. 숫자·규정 얘기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I believe, don't quote me on this, ...'

12 Lagom means basically not too much, not too little.

라곰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라는 뜻이야.

X means basically ~ = 'X는 기본적으로 ~라는 뜻'. 외국어 단어나 개념을 설명하는 틀. not too A, not too B 대구.

13 It really resonates with me.

나한테 정말 와닿아.

resonate with + 사람 = '~에게 공감이 되다, 울림을 주다'. 철학·노래·말이 마음에 들었을 때 'I like it' 보다 깊은 표현.

14 There's no such thing as bad weather, just bad outfits.

나쁜 날씨란 없다, 나쁜 옷차림이 있을 뿐.

There's no such thing as ~ = '~같은 건 없다'.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처럼 격언에 자주. 북유럽의 유명한 속담.

오늘의 단어·표현 15개

표현	뜻	대본 속 예문
from the perspective of ~	~의 관점에서	this is from the perspective of a bartender, right?
color (동사)	(판단·시각에) 영향을 주다	So that colors this.
customize	입맛대로 바꾸다, 맞춤 주문하다	they love to customize everything.
just saying	그냥 그렇다고 (공격 의도는 없음)	Just saying.
stay attached	붙어 있는 상태로 있다	the bottle caps have to stay attached.
regulated	규제된, 규정으로 정해진	I think it's, like, regulated at some point.
mandate	(법으로) 의무화하다	I want every country in the world to mandate that ~
stroll / pram	유모차에 태워 산책시키다 / (영국식) 유모차	there were so many kids being strolled around. ... they call them prams, right?
sip	홀짝이다, 조금씩 마시다	two dads sipping their coffee, dressed so nice
don't quote me on this	확실치 않으니 그대로 인용은 말아 줘	I believe, don't quote me on this, for every child born, there's 18 months of parental leave
parental leave	육아휴직	there's 18 months of parental leave
predominantly	대부분, 주로	US is still predominantly you'll see women with their babies outside.
stick out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I think two things that stuck out.
resonate with ~	~에게 와닿다, 공감을 일으키다	it really resonates with me.
instill (a value) in ~	(가치관을) ~에게 심어 주다	the value I want to instill in them, too.

전체 대본 + 해석

영어 줄을 먼저 소리 내어 읽고, 막히면 보라색 해석을 확인하세요. 회색 줄은 추임새(따라 하되 굳이 외울 필요 없음).

0:00	What'd he And, you know, this is from the perspective of a bartender, right?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참고로 이건 바텐더 입장에서 본 거야.
0:03	So that colors this. 그래서 그 관점이 반영돼 있지.
0:04	But he's like, "Americans are, one, so loud." Mm-hmm. 근데 그 사람 말이, '미국인은 첫째, 너무 시끄럽다.'
0:07	"You hear them before you see them." Yeah. '보이기 전에 소리부터 들린다.'
0:09	"So if I, like, hear someone from across the room or down the street, I'm like, 'Oh, probably an American.' '그래서 방 건너편이나 길 저쪽에서 누군가 소리가 들리면, 아 아마 미국인이구나 하지.'
0:14	And then number two, they love to customize everything." '그리고 둘째, 뭐든 다 커스터마이징하는 걸 좋아한다.'
0:18	Oh.
0:18	'Cause he's like, you know, most Europeans will just say, like, "Oh, let's give me the, a cocktail that you recommend." Yeah.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추천하는 칵테일로 주세요' 하는데,
0:23	But Americans will always specify, like, what kind of mixer, what kind of- Oh, so it's not a Western thing. 미국인들은 항상 어떤 믹서를 넣을지, 어떤... 다 지정한대. — 아, 그럼 서양 전반의 특징이 아니라
0:29	It's an American thing. 미국적인 거네.
0:30	It's not an American thing. 서양 전체가 아니라
0:31	American thing. 미국적인 것.
0:31	Just saying. 그냥 그렇다고.
0:31	He's like, "They just customize everything." Yeah.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커스터마이징한다'고 하더라.
0:34	Okay.
0:34	So, like, you know, the the bottles- like the plastic bottles- Mm-hmm ... the top, when it comes off- Yeah ... there's a little bit left attached. 그리고 있잖아, 페트병... 뚜껑이 열릴 때 병에 조금 붙어 있는 거.
0:42	Yeah.
0:42	So- the- a European thing ... it's so good. 그건 유럽식인데... 진짜 좋아.
0:44	Yeah.
0:44	It- it's, like, the greatest thing ever. 역대 최고의 발명 같아.
0:46	Mm-hmm.
0:46	I don't know why every country in the world doesn't require it. 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걸 의무화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0:48	So these caps have to stay fixed to the, to the bottle. 그 뚜껑들이 병에 고정돼 있어야 하거든.
0:52	Mm-hmm.
0:52	Yeah.
0:53	so good. 너무 좋아.
0:53	Yeah.
0:53	You never lose it. 절대 잃어버릴 일이 없지.

0:54	I think it's, like, regulated at some point. 어느 시점에 규제로 정해진 것 같아.
0:57	What do you mean? 무슨 뜻이야?
0:58	Like, you're not allowed to not have them?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1:00	Yeah.
1:00	Yeah.
1:01	That's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1:02	I want every country in the world- ... to mandate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의무화했으면 좋겠어,
1:05	that the bottle caps have to stay attached. 병뚜껑이 반드시 붙어 있게끔.
1:08	Okay. Oh two more things I'll mention. 아, 두 가지만 더 말할게.
1:10	One there were so many kids being strolled around. 하나는, 유모차에 태워 다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
1:14	Mm-hmm.
1:15	I honestly think it was about 70% of the time, the father. 솔직히 70% 정도는 아빠가 밀고 있었던 것 같아.
1:18	Mm.
1:18	Mm.
1:19	they call them prams, right? 거기선 pram이라고 부르지?
1:20	But they're, like, really big baby carriers. 근데 진짜 커다란 유모차야.
1:23	But yeah, their, their dad's running or pushing, pushing them around. 아무튼 아빠들이 뛰거나 밀면서 데리고 다녀.
1:26	Like, it was such a common scene to walk by a coffee shop, two dads sipping their coffee, dressed so nice, right? 카페를 지나가면 아빠 둘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커피를 홀짝이는 게 아주 흔한 풍경이었어.
1:32	With their little prams and their babies in the pram next to each other. 나란히 놓인 유모차에 아기들을 태우고 말이야.
1:36	It's just, like... I think, I believe, don't quote me on this for every child born, there's 18 months of parental leave, and the mom and dad can split it however much they want. 내 생각엔... 정확하진 않으니 인용은 말고, 아이 한 명당 18개월의 육아휴직이 있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나눠 쓸 수 있대.
1:46	Mm. Right?
1:46	So maybe the mom gets all of it. 그러니까 엄마가 전부 쓸 수도 있지.
1:48	But I assume it's very, very common for the dad to take a lot of time off- and, you know, spend time with their kids when they're young. 근데 아빠가 오래 휴직하고 아이가 어릴 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아주 흔한 것 같아.
1:53	So even compared to the US, like, US is still predominantly you'll see, see women with their babies- outside. 미국과 비교해도, 미국은 여전히 밖에서 아기와 함께 있는 건 대부분 여성이거든.
2:00	But here it was overwhelmingly, I think the majority- of the time it was the dad with the kid outside. 근데 여기선 압도적으로, 대다수가 아빠가 아이와 밖에 있더라고.
2:05	So it was just, like, so surprising to me. 그래서 정말 놀라웠어.
2:07	Mm-hmm.

2:08	And then the final two things I wanna mention, Swedish culture, I think two things that stuck out.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두 가지, 스웨덴 문화에서 눈에 띈 두 가지가 있어.
2:14	One was called let me get the, the phrase right. 하나는... 표현을 정확히 말해 볼게.
2:18	They really believe in this thing called lagom. 그들은 '라곰(lagom)'이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여겨.
2:21	So lagom means basically not too much, not too little. 라곰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라는 뜻이야.
2:23	Okay.
2:24	And I think it's a core philosophy in how they live. 그게 그들 삶의 핵심 철학인 것 같아.
2:27	Oh.
2:27	Oh.
2:27	Like, let's not have too much, no excess- but also not too little. 너무 많이 갖지 말고, 과하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적지도 않게.
2:30	So like, let's live just right. 그러니까 딱 알맞게 살자는 거지.
2:32	Mm.
2:33	And I don't know, it really resonates with me. 뭐랄까, 나한테 정말 와닿았어.
2:34	That's kind of how I really try to raise my kids, and the value I want to instill in them, too. 내가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심어 주고 싶은 가치이기도 하거든.
2:40	Mm. So I just love that it's, like, a core, core thing with Swedish culture. 그래서 그게 스웨덴 문화의 핵심이라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
2:44	Mm.
2:45	The other thing is I heard that they believe there's no such thing as bad weather, just bad outfits. 또 하나는, '나쁜 날씨란 없다, 나쁜 옷차림이 있을 뿐'이라고 믿는데.
2:54	And so- What does that mean? 그게 무슨 뜻이야?
2:55	a sense, it's like even if it's raining outside- Mm ...they're not gonna tell their kids to stay in. 그러니까 밖에 비가 와도 아이들한테 집에 있으라고 하지 않는 거야.
3:00	They're gonna give them the raincoat, give them the rain boots- and let them go play outside. 우비 주고, 장화 주고, 나가서 놀게 하는 거지.
3:04	Wow. 와.
3:04	Whether it's snowing or hot or whatever. 눈이 오든 덥든 뭐든.
3:06	It's like no bad weather, just bad outfits. 나쁜 날씨란 없고 나쁜 옷차림만 있다는 거지.
3:09	Mm. And so again, I just love that, that philosophy.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 철학이 정말 마음에 들어.
3:12	Mm-hmm.